

소득 적을수록 지원은 더 많이 뭇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해야”

1년여간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중위소득별 구분, 최대 36.6조 필요 기초연금과 연계 시 효과 극대화

서울시가 '소득보장 복지실현'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지원해주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젠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전국이 함께 누릴 때”라며 디딤돌소득을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 3년차에 접어든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디딤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특별시청에서 디딤돌소득 K-복지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를 시작했고 1년여 만에 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불안층(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우선 '빈곤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무능력 입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모델 적용 시 약 13조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모델은 빈곤위험층 즉 국가 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약 23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는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한 저소득 불안층, 기준중위소득 85%까지 포함하는 모델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모델이다.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약 3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연구에서 디딤돌소득과 약 95종의 복지제도와의 관계성도 살펴봤다. 분석 결과 유사한 생계급여,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등은 통합하고, 기초연금 등은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딤돌소득은 현 제도 사각지대 보완, 빈곤위험층 등 신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어렵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복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해외에서도 한국어 전자책 14만 종 대어

서울시교육청, 한국어 학습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을 통해 일본 등 26개 재외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도교육청 최초로 추진되는 '재외한국교육원 전자책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증가하는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해외 학습자들의 한국어 도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일환으로 재외한국교육원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도서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비해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여러 국가에 종이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제공동수업에 참여하는 독일·미국·일본·프랑스·호주 등 26개 재외한국교육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의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재외한국교육원은 약 14만 종의 한국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국제식품박람회서 무역활동 펼쳐

해외 바이어 상담 22건 진행 등 성과

인하대학교는 최근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본 국제 식품 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식품·음료 박람회로 매년 95개국 이상 바이어와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다.

인하대 GTEP 사업단 소속 김동모, 김재원 학생은 협력업체인 ㈜부각마을

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총 22건의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시키는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GTEP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계 요구에 맞춘 해외지역 특화 무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하대는 19년간 사업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무역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전통시장 점포 위치, '입체지도'로 한눈에

서울시,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9곳 고정밀 데이터 수집, 3차원 지도 구현 층별 점포, 안전시설물 등 주소 부여

그동안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없어 찾아가기 힘들었던 전통시장을 다양한 점포와 시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체지도가 구축된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3D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동시장, 서울약령시장 등 건물형시장 2곳과 청량리전통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등 골목형시장 7곳에 위치한 상가 1400여곳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



3D 입체주소 모습. /서울시

은 전통시장에 X-Y-Z 좌표로 구성된 3차원 입체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3D지도를 구현, 전통시장 내 점포와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이번 '전통시장 3D 입체주소

지능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하나의 주소로 통칭하는 것이 아닌 출입구를 기준으로 실내의 스팟에 대한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이른바 '서울시 전통시장 유형별 주소부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통시장을 공간구조에 따라 시장 내 점포 등의 위치와 소방안전, 대피로, 전기가스안전 시설 등의 위치를 수집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기초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최첨단 장비인 스캐닝 라이더를 활용해 3차원 고정밀 데이터 수집하고 이를 점포, 주요 안전시설물을 비롯한 객체 정보와 결합 후 3차원 입체주소 및 지도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구리시, 상권 활성화 '와구리맛집' 순항

숨은 맛집 발굴해 지역 상권에 활력

구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8기 우수 시책으로 추진한 '와구리맛집' 지정 사업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와구리맛집'은 맛과 가격, 위생 및 시설,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구리시가 인증하는 대표 맛집으로서 음식문화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와구리맛집'과 '노포식당'을 널리 알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1회 구리시장과 함께하는 '와구리맛집'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년간 총 28개의 '와구리맛집'과 2개의 '노포식당'을 지정했으며, 올해도 숨어 있는 우수 맛집을 발굴하여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8호선 개통을 계기로 숨어 있는 맛집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구리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구리(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교육청, 아시아문화전당과 예술교류

예술교육 콘텐츠 공유, 예술인 양성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간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우수 예술교육 콘텐츠 공유로 학교예술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해 서울예술교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교류 교육 사업

을 위해 ▲전시 해설 및 시설 투어 제공 ▲다양한 규모의 시설 사용 지원 ▲찾아가는 & 찾아오는 문화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홍보 협조를 주요 사업과제로 선정한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확산, 학생 창의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상호협조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25일(화)

음력 : 2월 26일

수도권 날씨

8 ~ 20°C

해돋이 / 06:28 | 해질 / 18:48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中외교 “日총리, 중국 입장 존중한다 발언”...日 정부 “사실과 달라”

▲중국 3번째 항모 7번째 해상시험...올해 취역 가능성 커져 /사진 뉴시스

▲“유럽, 미국산 무기 무력화 ‘킬 스위치’ 우려... F-35 구매 재고”

▲트럼프 “케네디 암살, 오스왈드 단독범행 아닐 것”

▲이스라엘 내각, 이번엔 검찰총장 해임 절차 착수

▲외신도 ‘韓탄핵 기각’ 긴급 타전...“尹 선고 미정에 불안감 커져”